

## 전라남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취업·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참여노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경아\*

### < 국문요약 >

본 연구목적은 2015년 시작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특히 창업·취업 관련 세부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취업 및 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창출 정책의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자료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며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창업 및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임의추출하여 150명을 대면면접 방식으로 2015년 9월에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사업의 모집, 교육, 담당자 및 총괄적인 사업만족도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개인특성 및 정책과 관련된 개인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적 특성변수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취업창업 세부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책관련 개인특성변수로서 생활비부담요인이 중요했고, 개인특성 중에서는 건강상태, 연령, 노령연금수령상태 등이 참여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정책만족도

\* 김경아(E-mail: ratna@honam.ac.kr)

현직: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학위취득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14일, 논문수정일: 2015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16일

#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Supporting Project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bout Business Start-up or Employment Policies

Kim, Kyung-ah

## <Abstract>

This study stimulates understanding of supporting projects about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particularl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activities of the aged who participated in business start-up or employment projects on satisfaction. As supporting projects about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s the key project of the policies of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cuses on these kinds of projects. The author collected data from a sample of the aged who participated in business start-up or employment projects conducted by Cheon-nam government in 2015 by means of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analysis present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roject and satisfaction of collection, training and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upporting of the living cos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with the project.

**[key words]**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policies, business start-up or employment policies, supporting project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 I. 서론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변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세대간 분담을 유도하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노인세대의 삶의 질 등의 키워드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인세대의 역할과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개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외환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으로부터 조기에 퇴출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부양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면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인구구조적 측면에서는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04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사업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원기능을 강화시키는 실질적인 사업과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 2011, 2013).

그 중에서 고령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4,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노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적극참여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노인인력에 대한 교육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5).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정책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전라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서양열 2004; 김준환 2010). 더욱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이에 대한 효과성 등의 선행연구가 없다. 향후 진행될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지원사업 유형별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양할 것이며, 정책효과의 특성상 프로그램 종료 후 종단적인 변화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바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유형별 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다. 사업에 대한 참여노인들의 정책만족도와 그 결과로서 과급되는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기초연구로서 현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참여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5년 전라남도 도시 및 군지역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취업 및 창업형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 및 창업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부터의 정책적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분야의 선택이었다. 또한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인들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창업 및 취업 분야의 정책들이 핵심정책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는 정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근무환경 및 총괄적인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정책관련 요인을 설명하였다.

## II.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 1.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적 성격

한국이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5.13.). 첫째는 노인 빈곤율이 2014년 48.1%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심지어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2015년 3월 현재

한국은 65세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 수준인데, 문제는 2014년 8월 기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70.7%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345만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고용되어서, 고용안정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통계청 2013). 넷째, 한국의 노인 전체소득의 58%가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등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53%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5.13.; 통계청, 2013).

이것은 한국에서 노인세대의 일자리창출이 사회참여를 통한 활발한 노후생활을 영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활비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유형별 성격이 재능나눔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취업 및 창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노인 경제활동참여 역량에 대한 정부지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종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적용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ies)란 시장중심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 개념 속에 사회적 관계 및 공유, 협동, 공생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봉 2007, 31). 사회적 경제는 경쟁과 이윤극대화라는 시장경제적 가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표 1> 노동시장정책의 목적과 프로그램 유형

유형	목적	프로그램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취업취약자 및 실업자들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접근성 향상 -직업관련 역량강화	-공공고용 -노동시장훈련 -정부고용지원 ①민감부문임금보조 ②창업지원 ③직접일자리창출 -보호된 고용과 재활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	-실업, 조기퇴직 등의 위험발 생시 생계보호 지원	-소득이전정책 ①실업급여 ②조기퇴직지원

출처: Martin and Grubb, 2001 재구성

되어 공생하고 협동하며 공유한다는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 논의되는 초기에 있다(장우진 2011, 3-8).

노동수요가 침체되고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창출은 불황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되는 경제상황에 직면했다. 이때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Martin and Grubb 2001). 이처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촉구하는 경제학적 토대가 대안적 경제시스템에 관한 논의인 것이다.

직접적인 정부개입에 의한 일자리창출 정책은 구직자들의 직업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들이 노동력으로 복귀하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시장소득

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 & Grubb 2001).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일자리창출정책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기간이 짧고 소득수준도 낮은 일자리들이 많다. 그럼에도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Smith 2000; Martin and Grubb 2001; Antonopoulos et al. 2011).

한국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출산율 급감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중에서 특히 취업과 창업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앞서 언급한 대안적 경제시스템

의 논리도 작용하지만,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서 노동가능 고령인구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5만개씩 늘려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2013년까지 10년 동안 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2013-2017년 2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은 10년의 성과를 4년 만에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이다. 이를 위해 월 보수가 30~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참여기간도 9개월이나 연중사업으로 연장되어 2012년 대비 동일사업의 예산이 2배까지 증가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산의 구성과 증가의 요인을 살펴볼 때,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정책들이 그동안의 복지정책적 성격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을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일자리창출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실화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sup>1)</sup>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4개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김준환 2010). 첫째는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평가, 둘째는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근로의욕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설명, 셋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넷째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효과성 평가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정책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인 직무, 업무내용, 교육내용, 동료관계, 관리담당자 등에 관한 만족도로 나눌 수 있다(장원봉 2007; 이환범 2009; 김학만 2011; 장우진 2011; 김동배·유병선 외, 2012; 조준·김영희 외 2014; 하경분·주민경 외 2014; 장신재·조자영 201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의 정책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고재욱·이동렬 2011; 김동배·유병선 외 2012; 조준·김영희 외 2014; 장신재·조자영 2015).

1) 본 연구는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취업 및 창업 부문의 세부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였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2004년 시작된 정책으로, 2015년부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전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2015년 9월 현재로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연구가 거의 전문하기 때문에, 정책맥락의 근원이 되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논의로 가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칭하여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이라고 명명한다.

종속변수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의 정책만족도는 직무만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직무만족이란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지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각 개인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직무 자체에 대해서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하춘광·김효순 2009; 엄운섭·안치순 외 2011; 박평 2013; 조준·김영희 외 2014). 롤러(Lawler 1973)는 직무만족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요인별 만족도로 구분하였다(엄운섭·안치순 외 2011, 103). 전반적 만족은 직무를 통해 갖게 되는 전체적인 느낌을 의미하고, 요인별 만족(factor satisfaction)은 직무와 관련된 개별요인별로 갖게 되는 경험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서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특성,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특성, 정책집행지역특성 등이 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동료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지역이 중소도시인가에 의해서도 일자리지원사업의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받는다(김학만 2011; 김동배·유병선 외 2012; 박평 2013). 그 외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등과 관련해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개인의 성취감, 안정감, 책임감, 안정감 및 도전성 등의 개인특성의 영향도 설명되기도 한다(박평 2013, 116). 그러나, 본 연구처럼 노인일

자리 관련사업에 참여한 정책대상자들이 정책참여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관점의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감성적 지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서 인구학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개인변수와 정책과 관련된 개인변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개인변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인식과 정책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연령, 학벌, 성별, 기초생활 및 장애등록 여부, 건강상태, 인간관계 등이 있다(하춘광·김효순 2009; 김준환 2010; 김학만 2011; 김동배·유병선 외 2012; 조준·김영희 외 2014; 허준수 2014; 장신재·조자영 2015). 최근 연구들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직무만족도에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근무지역, 나이가 선행연구 분석모형에서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엄운섭·안치순 외 2010; 김학만 2011; 김동배·유병선 외 2012; 박평 2013; 조준·김영희 외 2014; 하경분·주민경 외 2014; 장신재·조자영 2015).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근무지역, 성별, 나이 등이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가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조준·김영희 외 2014, 296).

둘째, 정책과 관련된 개인변수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개인적

인 특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사업과 관련된 경력, 사업과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적 환경 등이다. 이러한 정책관련 개인특성을 따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추가한 이유는 개인의 요인을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이 아니라 해당정책과 관련된 관점에서 정책대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 또한 분명히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립변수로서 인구학적 개인특성 및 정책관련 개인특성 이외에 정책이 집행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책만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지역은 공간적 밀도, 산업의 다양성, 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다양성, 교육기관 등 생산자서비스 활용을 위한 공간적 거리, 대중교통 등의 공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김경아, 2014b).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특성차이는 도시화경제와 지역화 경제 등 집적경제의 생산성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김경아 2014a). 결과적으로 정책대상자들이 동일한 개인적 특성을 가졌다고 가정하여도, 일자리를 찾는 응답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만족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 Ⅲ.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현황

#### 1.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의의 및 유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념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도 자세하게는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보건복지부 2015). 다만 정책의 목적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이를 통해서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업신청연령을 제한’하여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의 소외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 근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건강한 삶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이 있다. 2015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2014년 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초과하여 2015년에는 33만7천개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개편한 가장 큰 특징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취업·창업활동, 자원봉사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노인세대의 사회활동참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취업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십,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고령자친화기업이 해당한다.

## 2.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취업, 창업 지원정책 주요내용 및 예산

<표 3>은 창업활동 및 취업활동의 유형과 주요내용이다. 창업활동은 노인세대

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4>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참여자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의 기준이다. 사업유형별 참여자 1인 예산지원기

<표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유형 개편전후 비교

		사업개편 前	사업개편 後
명칭		노인일자리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유형	사회공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형(13개)</li> <li>▪교육형(12개)</li> <li>▪공익형(16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형(전국공통, 1개 프로그램)</li> <li>▪ 지역형(지역선택, 30개 프로그램)</li> </ul>
	재능나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학대노인 발굴, 교육, 상담</li> </ul>
	시장진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작업형</li> <li>▪ 제조판매형</li> <li>▪ 인력파견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li> <li>▪ 고령자친화기업</li> <li>▪ 인력파견형 (취업지원센터: 구직구이포탈중심)</li> <li>▪ 시니어인턴십 (노인사회활동교육센터연계)</li> </ul>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시장자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인턴</li> <li>▪ 고친기업</li> <li>▪ 시니어직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직능클럽</li> </ul>
노인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li> </ul>	

자료: 보건복지부,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pp. 2.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는 연중운영사업이다. 취업활동은 인력파견형과 시니어인턴십이 있는데,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한 교육수료자 및 관려업무능력 경력자를 수요처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직업역량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인턴형과 연수

준은 창업활동의 경우 공동작업은 연 180만원 제조판매는 연 200만원이다.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와 장비비, 시설비, 교육비와 홍보비 등이며, 인건비로 할 경우에는 각각 연간 180만원,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별도계좌로 운영하여 자체수입 및 지출과는 분리하여 사업비목별로 산출근거에 따라 관리한다. 취업활동 지원사업은 인력파견형의 경우 참여인원

<표 3> 창업 및 취업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및 내용

창업활동지원		취업활동지원		
분류	세부사업명	분류	세부사업명	
공동 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인력 과 견 형	일 회 성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지역영농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기타 공동작업형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제조 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지 속 형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매장운영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청소, 미화원 파견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지속 통합사업
	기타제조 및 판매사업			인턴형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보조금 지급	시니어 클럽	연수형(3개월연수 후 취업유도)	

\*주1: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사업전체참여자의 70%이상을 고령자로 구성 하는 기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설립초기년도에는 60% 예외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사업 종합안내』 pp.20-21  
 보건복지부. 2014년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

<표 4>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자 1인당 예산지원 기준

유형	참여자 1인 예산기준				예산 지원			
	활동비 (월)	참여 기간	부대 경비(원)	계				
창 업 활 동	공동작업형	-	연중	180만원	18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제조판매형	-	연중	200만원	200만원			
	고령자친화기업	보조금 지급(노인고용율70%이상 기업)				민간 경상보조		
취 업 활 동	인력파견형	-	연중	15만원 (탄력)	15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인턴지원금	45만원	3개월	-	135만원	민간 경상보조	
		연수지원금	30만원	3개월	-	90만원		
		채용성과금	45만원	3개월	-	135만원		
		위탁 운영비	인턴형	-	3개월	30만원		90만원
			연수형	-	3개월	10만원		30만원
채용성공보수	-	1인당	5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안)  
 보건복지부(2014.02.18.),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위탁사업기관 공모  
 보건복지부(2015),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2015.04.27.), 2015년도 「시니어직능클럽」 공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03.17.), “재능있는 어르신들께 나눔활동 기회를 드립니다.”

50명까지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50명 초과인원은 초과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독려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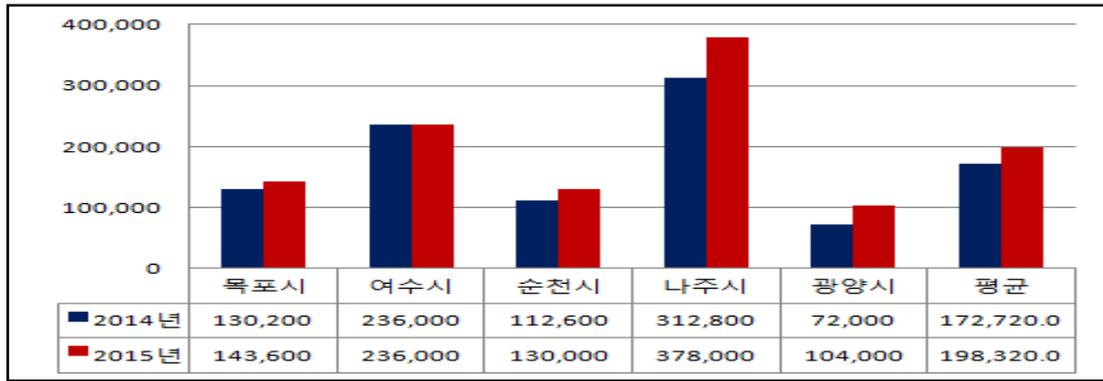
시니어인턴십에서 인턴지원금은 1인당 월 최고45만원까지 월 급여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급하고, 연수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씩 연구기간동안 지원한다. 인턴 및 연구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시니어인턴십은 일정기간을 일하고나면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므로, 참여기업이 인턴종료 후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동안 최대 45만원까지 급여의 50%를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 3. 전라남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징

전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창업형 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공동작업형 사업은 목포시(3), 순천시(1), 나주시(3), 광양시(3), 곡성군(3), 보성군(2), 강진군(2), 영광군(2), 완도군(2), 진도군(2)에서 총 23개 사업이 운영중이다. 대다수의 사업이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및 지역영농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제조판매형 사업은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고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등의 유형으로 총 3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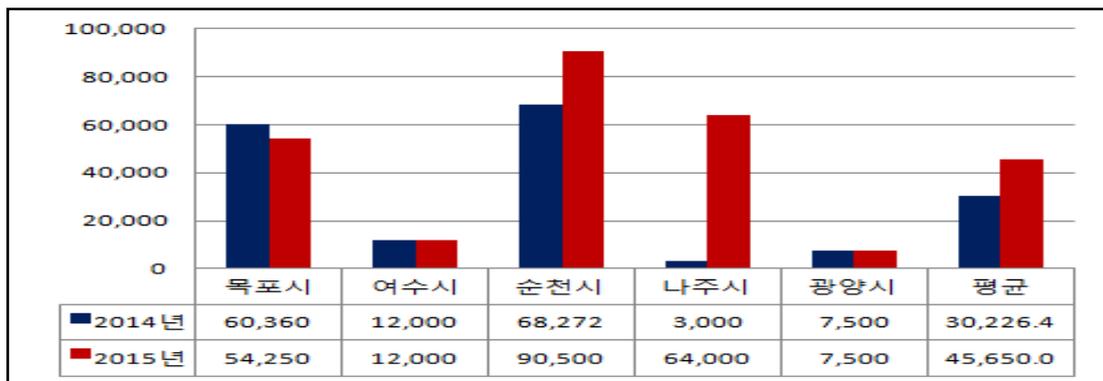
전남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중 취업형

사업은 총17개로 주로 인력과건형이 12개 사업, 시니어인턴십은 5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창업형 60개와 취업형 17개 사업으로 총7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행기관은 총29개이다. 취업형 사업기관은 16개이고, 창업형과 취업형을 같이하는 사업기관은 총7개 기관이다(<부록3>참조).



(단위 : 천원)

<그림 2>市지역 창업지원사업 예산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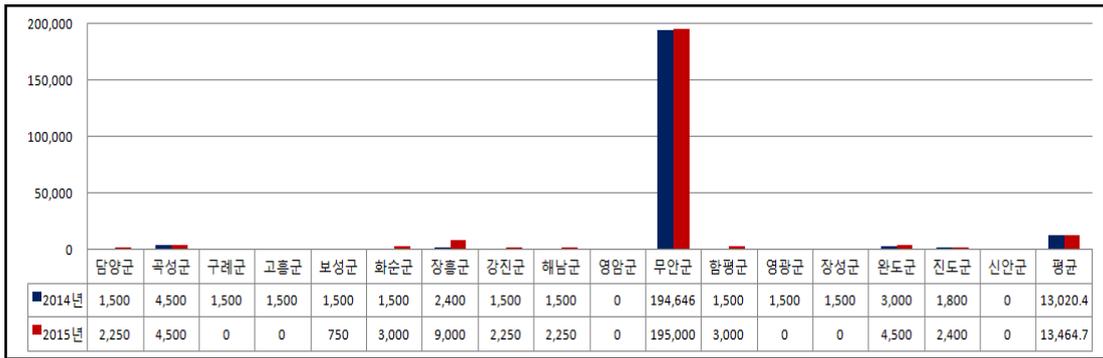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그림 3>市지역 취업지원사업 예산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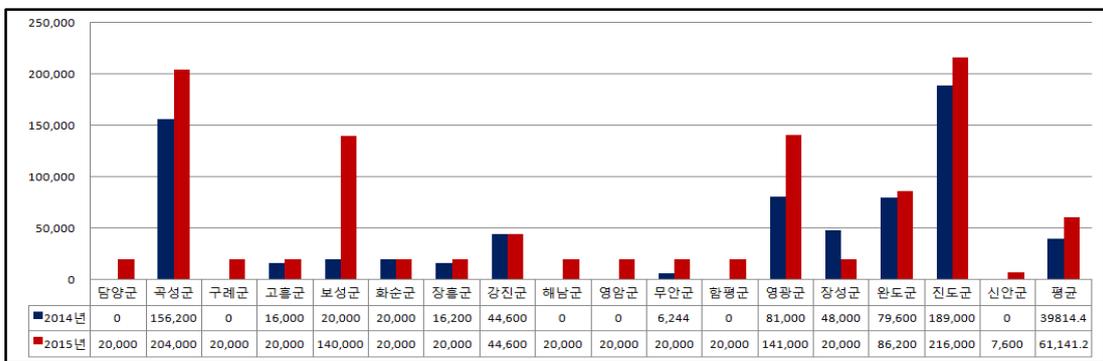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는 도시지역 창업 및 취업사업의 예산총액이다.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나주시가 가장 예산규모도 크고 증가율도 높다. 대체적으로 모든 도시지역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취업지원사업의 예산에서 순천이 예산규모면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나주시의 경우 2014년에는 취업지원사업이 미비하였으나 2015년 5개 시지역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여수시와 광양시 등 동부권 도시의

예산사업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 향후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그림 4> 郡지역 취업지원사업 예산총액



(단위 : 천원)

<그림 5> 郡지역 창업지원사업 예산총액

<그림 3>은 군지역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총액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5년 모든 군에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적극적인 변화는 보성군과 영광군이고, 2014년부터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곡성군, 진도군이 있다.

<그림 4>는 군지역 취업지원사업의 예산총액이다.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군을 제외하고는 영암군, 신안군 등은 2014년과

2015년 모두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다. 영광군, 장성군, 구례군, 고흥군의 경우 오히려 2014년에 수행하던 사업을 모두 철수하였다. 이처럼 취업지원사업은 군지역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가 없다는 것과 교통 등의 접근성 문제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도시지역과의 커다란 이점이다. 이에 대한 향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노인 취업, 창업 지원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1

#### IV. 취업창업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분석틀 및 분석방법

실증분석자료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창업 및 취업활동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임의추출하여 150명을 대면면접 방식으로 2015년 9월에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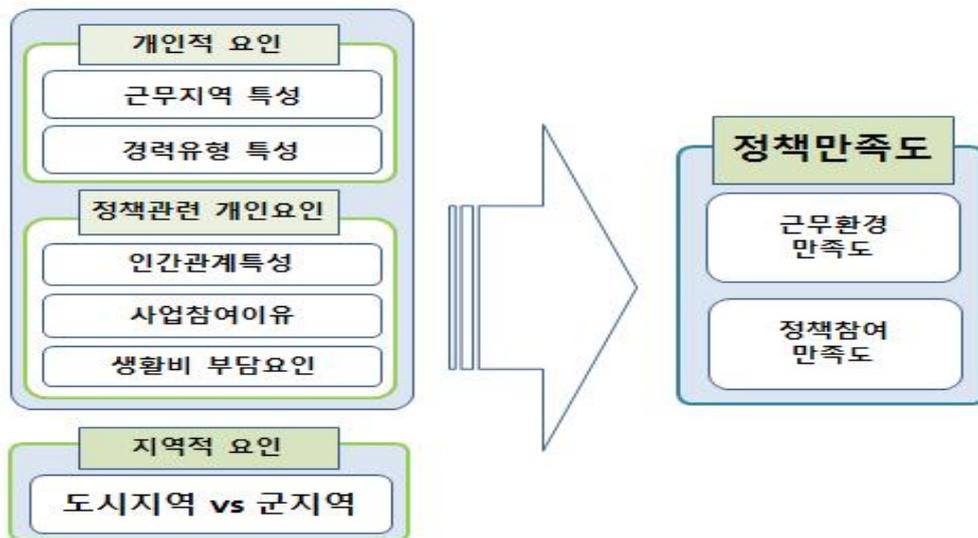
설문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정책적,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특성, 정책적 연계성을 갖는 특성, 지역입지특성 등이 있다. 이러한 관계를 기초로 한 분석틀은 <그림

5>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등록장애여부, 기초연금수급여부 등을 설문하였다. 정책과 관련된 개인특성으로는 사업참여기간, 인지경로, 참여이유, 근무시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요인, 참여시 어려웠던 점, 참여시 가장 우선시 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였다. 지역적 특성이란 공간적 특성을 의미하며, 산업이 단순하여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 비교적 약한 농어촌 郡지역,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지역화 경제가 존재하는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실증분석

###### 1) 빈도분석

실증분석은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 150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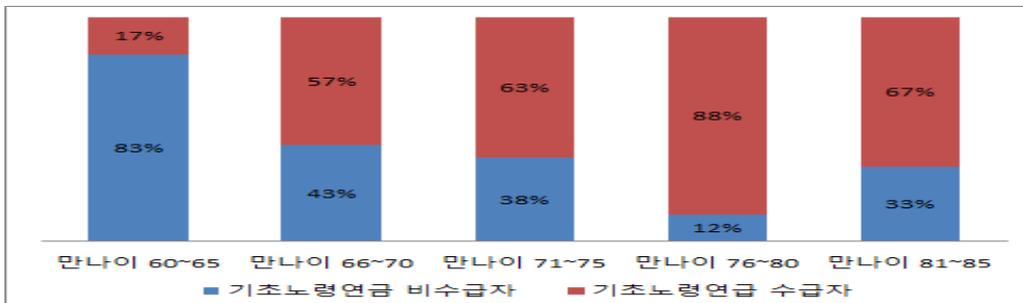
<그림 6> 분석틀

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특정한 답변번호로 응답한 경향이 큰 15부를 제외하고 총 135부를 분석하였다. 창업취업 노인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유형은 공동작업형 49.6%와 제조판매형 31.9%가 가장 많다(<표 5>참조).

연령별로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무학의 경우 76~80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서 무학은 크게 감소하여 60~65세 노인은 무학자가 없다(<그림 7>참조).

<표 5> 창업취업 노인사회활동참여 지원정책의 유형별 응답자

유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	합계
빈도	67	43	7	18	135
(%)	49.6	31.9	5.2	1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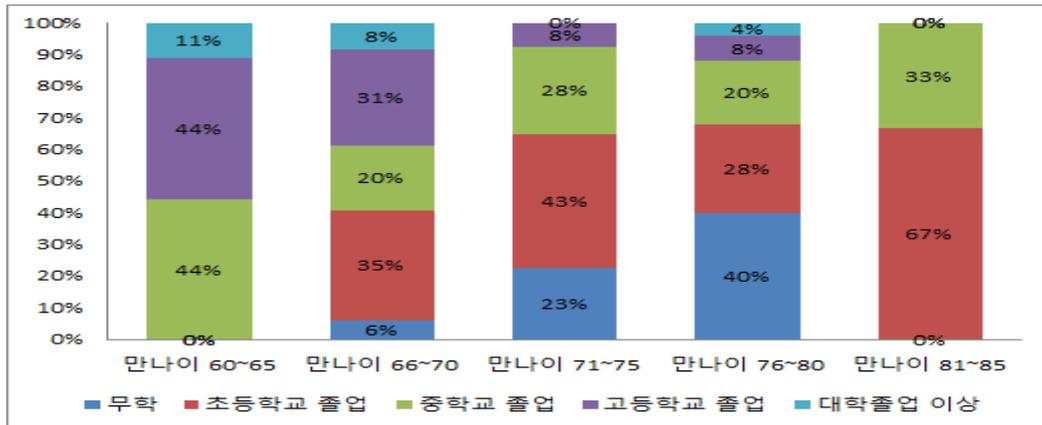
<그림 7>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그림 6>을 보면,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만 76~80세 응답자의 전체 88%가 해당하고, 81~85세의 노인은 67%, 71~75세 응답자의 63%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이다.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sup>2)</sup>.

과거고용형태는 주부 및 기타가 47.4%로 가장 많았고, 고용인 21.5%, 상용직 16.3%이다(<표 6>참조). 직업유형에 전업주부를 분리하여 설문한 이유는 기타에 국가의 직업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파일럿 테스트에서 여성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자신의 경력을 기타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분리하여 전업주부로 체크하도록 설문을 변경하였다.

2) 요약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지난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림 8> 연령별 학력수준

<표 6> 고용형태 관련 주요경력

고용형태 주요경력	고용인	상용직 피고용인	임시직 피고용인	일용직 피고용인	주부 및 기타	합계
빈도	29	22	6	14	64	135
(%)	21.5	16.3	4.4	10.4	47.4	10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정책과 관련된 참여노인들의 정책적 변수, 경제적 요인 및 인식경로는 <표 7>~<표 9>와 같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생계유지(36.3%)와 용돈마련(23.7%)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60.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14.1%), 건강유지를 위하

여(12.6%)등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관계형성 및 소외감 해소, 일을 통한 즐거움 발굴, 여가시간 활동, 자기발전의 계기 등과 같은 인간관계 및 삶의 여유 등과 관련된 이유가 참여의 동기가 된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적 요인으로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식비가 43.7%, 의료비

<표 7>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이유

참여이유	생계유지	용돈마련	사회활동 참여	건강유지	합계
빈도	49	32	19	17	135
(%)	36.3	23.7	14.1	12.6	
참여이유	자기발전	여가시간 활용	관계형성, 소외감해소	일을 통한 즐거움	합계
빈도	6	3	2	7	100
(%)	4.4	2.2	1.5	5.2	

가 31.9%, 주거광열비가 14.8%이다(<표 8>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곤란한 문제로는 낮은 보수가 5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너무 짧은 참여기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5%, 동료와의 문제라는 응답은 8.9%이다(<표 9>참조). 참여의 목적이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참여가 많다보니, 곤란

<표 8>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

생활비 주요부담	식비	의료비	주거 광열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합계
빈도	59	43	20	4	2	7	135
(%)	43.7	31.9	14.8	3	1.5	5.2	100

<표 9> 취업창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정책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곤란한 문제

어려운 점	동료와의 관계	소속기관과의 관계	교통문제	전문성 및 기술부족	노동강도, 난이도
빈도	12	2	7	9	4
(%)	8.9	1.5	5.2	6.7	3
어려운 점	일에 대한 흥미없음	낮은 보수	너무 짧은 참여기간	기타	합계
빈도	3	76	13	9	135
(%)	2.2	56.3	9.6	6.7	100

<표 10> 현재 참여하는 정책사업을 위한 건의사항

향후 건의사항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배치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 상향조정	참여근로 기간 확대	취업관련 정보 및 교육서비스 개선	합계
빈도	9	80	23	4	135
(%)	6.7	59.3	17	3	
향후 건의사항	사업종료 후, 일반 취업연계	자원봉사, 사회참여 연계	관매처 및 고객발굴 지원	기타	합계
빈도	6	4	3	6	100
(%)	4.4	3	2.2	4.4	

한 문제도 임금이나 일하는 기간과 같은 응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취업창업형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향후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59.3%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참여근로기간 확대가 17.0%,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배치가 6.7%에 이른다(<표 10>참조).

## 2) 다중회귀분석

<표 11>과 <표 12>는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 정책관련 개인변수, 지역요인변수를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정책만족도는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만족도로 구성하였다<sup>3)</sup>. 개인적 요인은 인구학적 특성과 인간관계 변수로 구성하였는데, 인구학적 특성이란 연령, 학력, 장애등록여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여부,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가구형태 등이다. 인간관계는 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이다.

정책관련요인은 참여이유, 경력, 생활비 부담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이유는

3) 참고로 <표 11>, <표 12>와 동일한 모형으로 종속변수를 수혜자의 교육만족도와 정책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만족도와 정책담당자에 대한 정책만족도는 지면상의 이유로 실증분석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정책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검토에서도 알 수 있다.

경력, 전업주부 여부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분석대상이 취업창업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의 과거 경력유형이 현재의 취업창업형 지원사업의 해당 업무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업주부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생활비부담원인을 정책관련요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앞서 빈도 분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창업형 지원사업의 가장 큰 요인이 생활비 또는 용돈을 벌기 위한 참여라는 점에 있다. 즉,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참여라면 그 생활비의 부담원인이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 특성요인은 도시공간과 농촌공간이라는 행정적 산업적 문화적 공간적 특성차이가 분명히 취업과 창업의 사업내용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개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라고 하여도, 응답자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일자리의 종류 및 경쟁력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은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들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았다.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높았다.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은 근무환경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책관련 요인

<표 11>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정책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bar{\beta}$	t	유의 확률	
			$\beta$	표준오차				
(상수)			3.474	.581		5.977	.000	
개인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	연령	.019	.076	.024	.245	.807	
		학력	.007	.072	.011	.102	.919	
		장애등록	-.236	.197	-.100	-1.199	.233	
		노령연금	-.297	.146	-.191	-2.028	.045	
		건강상태	.193	.094	.196	2.052	.042	
		가구형태	.034	.096	.031	.355	.723	
요인	인간 관계	가족관계	-.195	.130	-.206	-1.504	.135	
		친인척관계	.023	.143	.024	.162	.872	
		친구관계	.148	.142	.149	1.044	.299	
		이웃관계	-.117	.162	-.112	-.722	.472	
정책 관련 요인	참여 이유	생계유지	-.310	.219	-.195	-1.414	.160	
		용돈마련	-.210	.220	-.118	-.957	.341	
		사회참여	.019	.232	.009	.083	.934	
		건강유지	-.520	.253	-.227	-2.050	.043	
	생활 비 부담 요인	경력	전업주부	.019	.158	.012	.120	.905
		생활 비 부담 요인	식비	.483	.222	.314	2.173	.032
			의료비	.779	.236	.477	3.304	.001
주거광열비	.585		.269	.273	2.174	.032		
지역요인	도시더미	-.680	.182	-.367	-3.730	.000		
모형적합성 분산 F값			2.875		$\overline{R^2}$		.211	
모형적합성 유의확률			.000 <sup>a</sup>					

\*\*\* p< 0.01 \*\* p< 0.05 \* p<0.10 유의수준

중에서 참여이유는 건강유지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책만족도가 낮았다. 생계비나 용돈, 사회참여를 위한 참여는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근무환경에 좀 더 민감하고 더 세심한 주관적 판단기준이 적용되게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경력관련으로 전업주부이었거나 직업이

있었거나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비 부담은 식비, 의료비, 주거광열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개인적으로 생활비의 부담원인이 의식주와 관련된 응답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비교적 더 긍정적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

<표 12>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만족도

			비표준화 계수		$\bar{\beta}$	t	유의 확률
			$\beta$	표준오차			
(상수)			3.273	.540		6.065	.000
개인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	연령	.101	.071	.137	1.423	.157
		학력	.055	.067	.084	.820	.414
		장애등록	-.017	.183	-.007	-.091	.928
		노령연금	-.114	.136	-.076	-.839	.403
		건강상태	.309	.087	.327	3.543	.001
		가구형태	-.127	.090	-.120	-1.420	.158
요인	인간 관계	가족	-.153	.120	-.167	-1.268	.208
		친인척	.081	.133	.089	.612	.542
		친구	-.105	.132	-.110	-.799	.426
		이웃	-.104	.150	-.104	-.695	.489
정책적 요인	참여이유	생계유지	-.247	.203	-.161	-1.214	.227
		용돈마련	.036	.204	.021	.175	.862
		사회참여	-.175	.215	-.083	-.814	.417
		건강유지	-.441	.235	-.200	-1.874	.063
요인	경력 생활비 부담 요인	전업주부	.132	.147	.084	.899	.371
		식비	.227	.206	.153	1.103	.272
		의료비	.415	.219	.264	1.896	.061
		주거광열비	-.202	.250	-.098	-.808	.421
지역요인	도시	-.292	.169	-.164	-1.727	.087	
모형적합성 분산 F값			3.547		$\overline{R^2}$	.267	
모형적합성 유의확률			.000 <sup>a</sup>				

\*\*\* p< 0.01 \*\* p< 0.05 \* p<0.10 유의수준

다.

공간적 요인으로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정책참여노인들이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더 낮았다. 도시공간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일수도 있고, 농촌지역의 정책참여노인들이 근무환경에 대해 더 관대한 주관적 기준을 적용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판단은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표 12>는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 중에서 인구학적 특성은 건강상태만 영향을 미쳤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참여노인들은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만족도도 높았다. 인간관계는 총체적인 정책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책적 요인 중에서, 참여이유 중에서는 역시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와 같이 건강유지를 위해 참여

하였다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낮았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참여자들일수록 사업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여전히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책적 요인 중 생활비 부담요인은 식비나 주거광열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취업창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만족도가 높았다. 특별히 식비나 주거광열비 보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의 정책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점은 좀 더 심층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결과이다.

다만,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고, 건강유지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정책만족도가 낮고, 생활비에서 의료비의 부담이 높을수록 정책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로부터,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맥락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시작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근무환경과 정책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정책관련 요인, 지역적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취업 및 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노인일자리창출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전라남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도시 및 농촌의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응답자 특성을 설명하는 빈도분석과 정책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적 특성변수가 정책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관련 개인특성변수로서 생활비부담요인이 중요했다. 개인특성 중에서는 건강상태, 연령, 노령연금수령상태 등이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요인별 상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근무환경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하는 사람들이 정책만족도가 더 낮았다.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더 정책만족도가 높았는데, 건강유지를 위해서 참여한 사람일수록 근무환경에 대해 불만족 하였다. 전업주부 경력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생활비 중에서 의식주의 부담이 클수록 사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보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었다.

취업창업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전체적인 정책만족도가 낮았다. 그 외에는 핵심키워드가 건강이었다. 즉, 건강할수록

사업의 전체적인 정책만족도가 높지만 건강유지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은 정책만족도가 낮고,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가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다는 노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 외 빈도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사업참여 이유는 대부분이 생계와 용돈을 벌기위해 참여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이 의식주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생활비 부담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요인이 정책참여의 가장 큰 동인임을 알 수 있다. 홍보루트로서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 내 이장과 통반장, 관공서의 게시판 등의 공식적인 루트는 거의 작동하지 않다. 향후 정책홍보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정책수요자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가장 곤란한 문제로는 낮은 보수가 5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너무 짧은 참여기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5%, 동료와의 문제라는 응답은 8.9%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의 목적이 생활비와 용돈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문제해결을 위한 참여가 많다보니, 곤란한 문제도 임금이나 일하는 기간과 같은 응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취업창업형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향후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물가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 59.3%로 절대적으로 많았고, 참여근로기간 확대가 17.0%,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배치가 6.7%에 이른다.

경제적 요인에 대한 필요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고, 그 문제로 인해 곤란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관성있는 답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대안이 임금상향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취업 및 창업형이라는 유형자체가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좀 더 시장성 있도록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 “2011년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 고재욱·이동열,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4호, pp. 1209-1228.
- 고준기, 20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40권, pp. 83-111.
-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 2015.5.13.
- 김경아, 2014a, “서비스산업 기술혁신의 정부 지원 정책효과 연구-기술혁신 정부 지원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2호, pp. 215-238.
- 김경아, 2014b, “정부지원정책이 문화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1호, pp. 415-431.
- 김동배·유병선·정규형, 2012,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만족도가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3권 2호, pp. 267-293.
- 김미곤, 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페이지
- 김소향·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 29권 1호, pp. 309-327.
- 김준환, 2010, “노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제20권, pp. 147-194.
- 김진욱·손지윤,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4호, pp. 129-145.
- 김학만,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삶의 주관적 만족과 참여만족 간의 경로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논총』 제13권 1호, pp. 169-189.
- 박대식·조미형·한태녕, 2013, “농촌 노인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평,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9호, pp. 113-126.
- 보건복지부, 2012. 2014. 2015,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 서양열, 200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4권, pp. 31-51.
- 송부용·양인선·길수민·차석호·안점관, 2012,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pp. 1-41
- 엄운섭·안치순·손진아, 201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족도와 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강원지역 중소도시간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3호, pp. 97-126.
- 윤석경·권정만, 2010,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참여만족도의

-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한 탐색적 접근”,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2호, pp. 31-54.
- 이환범, 2009,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기능 재설계”,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3호, pp. 41-65.
- 장신재·조자영, 20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대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3호, pp. 123-132.
- 장우진, 2011,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충북지역 자활공동체,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 1-22.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2호, pp. 11-43.
- 정연자·전정수, 2014,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에 따른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8권 5호, pp. 193-223.
- 조준·김영희·조지현, 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1호, pp. 294-304.
- 최석현·하보란, 2012,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하경분·주민경·송선희, 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10호, pp. 160-170.
- 하춘광·김효순,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 36권 4호, pp. 394-414.
- 허준수, 2012,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 14권, pp. 89-128.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4권, pp. 235-263.

## References

- Antonopoulos, R., Papadimitriou, D.B. and Taun T. 2011. Direct Job Creation for Turbulent Times in Greece. Research Project Reports.
- Friedlander, D. & Greenberg, D. H. & Robins, P. K., 1997. Evaluating Government Training Programs for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35, No 4. pp. 1809-1855
- Martin. J.P. and Grubb, D.B. 2001. What works and for whom: a review of OECD countries' experiences with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URL: <http://whhttp://www.ifau.se/upload/pdf/se/2001/wp01-14.pdf> 2015.9.
- Smith, J. 2000. "Is the Threat of Training More Effective than Training Itself? Experimental Evidence from the UI System", Econometric Society World Congress 2000 Contributed Papers 1660, Econometric Society.

##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Ha, Choon-kwang and Kim, Hyo-soon. 2009. "The Effect of Elderly Job Projects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36(4): 394-414
- Chang, Cin-jae and Cho, Ja-young. 2015. "Effect of Job Satisfaction, Economic Condition Satisfaction, Change Self-Worth o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Participa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3): 123-132
- Park, Dae sik, Jo, Mi-hyeong and Han, Taen-yeong. 2013. "Current Situation of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and Policy Task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Dong-bae, Yoo, Byung-sun and Jeong, Kyu-hyoung. 2012.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n the Projec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for the Elderly – A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43(2): 267-293
- Kim, Hag-man. 2011. "Path analysis between subjective satisfaction of life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of a project for employment for the aged"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3(1): 169-189
- Lee, Hwan-beom. 2009. "Redesigning Governmental Functions for Creating Job of the Elderly" *The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6(3): 41-65
- Ko, Jea-ug and Lee, Dong-yeol. 2011. "The Degree of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policy effect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of the Elderly"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4): 1209-1288.
- Kim, Jin-wook and Son, Ji-yun. 2009.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Participation Continuity Intention" *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4): 129-145
- Cho, Joon, KIm, Young-hee, and Cho, Ji-hyun. 2014.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on Projec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for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 294-304
- Kim, Jun-hwan. 201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Focused on the Type of Senior Employment Project" *Korea Labor Institute* 20: 147-194
- Hur, Jun-soo. 2014.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mong the

- Elderly Person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64: 235-263
- Ha, Kyoung-poon, Joo, Min-kyoung and Song, Sun-hee. 2014.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Living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articipants in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160-170
- Kim, Kyung-Ah. 2014a. “The Impact of Supporting Policie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firm in the Service Industr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2): 215-238
- Park, Pyeong. 201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Participa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9): 113-126
- Kim, So-hyang and Lee, Shin-suk. 2009. “A Study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whether the Elderly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or no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1): 309-327
- Um, Un-sup, An, Chi-soon and Son, Jin-a.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Elderly Work Program Participants Implemented by the Community Senior Club” *Kore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5(3): 97-126